

이 나라는 이윤극대화를 위한 상품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농산물도 결국 상품이다!” 지난 3월 20일 농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정 최고책임자의 발언을 듣고 저는 큰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5년 전 2002년 11월 5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후보자 시절 바로 그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180도 전혀 다른 내용이어서 더 그랬습니다.

“농민과 농촌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의 원리가 아닌 사회정책적, 사회복지적, 또는 국토관리의 차원에서 또는 우리의 공동체 보존의 차원에 시장원리와 관계없이 농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대형할인점에 가더라도 350만 농민들이 소금땀 철철 흘려 만든 고품질의 농축산물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농산물도 엄연한 상품”이라며 개방이니 경쟁력이니 말합니다. 세계 최대의 시장 미국을 개척하기 위해서 한-미 FTA는 시대적 요청사항이라며, 국정 최고책임자의 임기말 역점 사업으로 결국 타결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4월 1일 오후 4시, 서울의 택시운전사 허세욱씨는 한-미 FTA 저지를 외치며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몸을 불태우셨습니다. 대표적인 상품, 용역 서비스라 할 수 있는 택시운전업에 종사하시는 분께서 말입니다.

회원 동지 여러분! 이 세상은 단순한 상품논리로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서로 이해하고, 돕고,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농축산물이 시장에 팔린다고 해서, 단순한 상품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농산물 속에는 우리 농민들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하늘의 이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은 상품이 아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농업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이치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윤극대화만을 위해 아름다운 이 나라와 350만 농민을 희생양으로 전락시키려는 잘못된 협상은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한-미 FTA, 한-EU(유럽연합) FTA처럼, 이 나라를 삭막한 상품의 논리만이 통하는 회색빛 세상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이치를 따르며,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우리네 삶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 선두에 우리 한농연 12만 동지 모두가 함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농연 전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6월 20일 오후 1시, 서울 시내에서 “한-미 FTA 저지 한농연 2차 총궐기대회”를 반드시 성사시켜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졸속, 밀실, 농업말살 협상인 한-미 FTA를 무효화시키고 국회비준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회원 동지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나로 뭉칩시다. 앞으로 있을 지역순회 간담회 자리 등을 통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